

# 「탈북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시민성의 특징」 토론문

정 호 범 (진주교육대학교)

## I.

본 연구는 남한의 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민성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표자는 12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에 따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발표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교급 및 유형, 학교소재지역, 부모학력,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북한학력, 제3국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 출생국, 주거형태)에 따라 민주 시민성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시민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제시한 12가지 요소들이 종속변수인 민주시민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표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탈북청소년을 위한 시민성 함양 교육의 접근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된 본 연구는 한국의 시민성 교육 분야에서 선구적이고 개척자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회화나 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미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매우 참신하고 선도적인 연구에 속한다고 볼 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탈북청소년들의 시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일부 몇몇 조사 항목에서 학교급과 유형, 한국거주기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이 하나의 동질집단과 같은 속성을 보였다. 발표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변인들의 시민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은 탈북청소년 집단이 한국사회의 다른 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동질적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들 내에도 학력과 계층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들 내부의 차이는 다른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비하면 미미한 차이일 수 있다. 특히나 탈북청소년으로 제한된 집단을 다시

인구사회학적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보려고 했으나 차이보다는 동질성이 큰 집단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시민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연구자가 애초에 품었던 기대와 다른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의 시민성 교육이나 정치사회화와 관련한 서설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 II.

본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 혹은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독립 변인(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12가지를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즉 시민성의 특징을 조사한 선행연구, 특히 본 연구에서 설문 내용을 참고한 국제시민성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국제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 등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변인을 설정하였는지 부연 설명을 듣고 싶다.

둘째, 독립 변인 중 연령과 체류 기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타난다. 즉 연령 분포는 ①12~14세, ②15~17세, ③18~20세, ④21~25세로 구분하였고, 체류 기간은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3년 미만, ③3년 이상~5년 미만, ④5년 이상~7년 미만, ⑤7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연령과 체류 기간을 세밀하게 구분한 배경이나 근거를 듣고 싶다. 3년 정도의 연령이나 체류 기간에 따라 시민성 실태가 다르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참고로 삼고 있는 국제시민성교육연구(ICCS)의 시민성 평가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행동’ 영역의 문항은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개의 내용 영역에 대한 가치·신념, 태도, 행위 의지, 실천행위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1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시민성의 ‘정의-행동’ 영역의 내용은 ①민주적 가치·신념과 태도 및 ②시민적 정치활동 참여의지 2가지로 구성되었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런 차이를 두어 조사한 이유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부탁한다.

## III.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현실 속에서, 본 발표는 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처방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는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시민성에 관한 실태와 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탈북 청소년들의 시민성 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와 더불어 남한의 일반 학생 혹은 다문화가정 자녀 집단과 비교분석하는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 발표자의 의도와 문제의식이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